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온 세상에

향기공화국 정읍 만들기 집중
창의적 문화 콘텐츠 발굴·확산
10월31까지 UCC 공모전 추진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은 정읍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건 오향(五香)이 주축인 정책사업이다.

정읍의 향기를 뜻하는 정향(井香)과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를 합성해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오향은 인향(人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으로 정읍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전통주 등을 아우르는 단어로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바탕으로 정읍 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정체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다.

시는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오는 10월31까지 '정읍의 오향'을 주제로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내용은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뜻하는 오향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소개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이다.

공모는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전자메일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2~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개인 또는 팀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면서 타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시는 우수작품에 대해 11월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총 12팀에 대해 총 145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정읍시청 성장전략실(063-539-69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 관주도의 사업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와 유틸리티를 발굴해 개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향누리, 정읍의 오향을 원동력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은 학부모와 학생이 부꾸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 농촌휴양마을 숙박·체험비 지원

익산시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1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익산시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비와 숙박비를 보조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농 교류 협력사업'에 선정된 덕분이다.

숙박비는 1박당 1인 1만원, 체험비는 1인 1회 1만원 이내다. 여행상품 지원은 익산농촌종합지원센터 아이나드리 홈페이지(www.inadr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익산시는 농촌체험 관광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여행 책자 '다이로움 시골여행'을 발간해 전북지역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순창군이 최근 신병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인구정책기획추진단을 열고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인구문제 대응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제안받은 29개 사업과 3월 중 주민 6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도출한 시사점과 기금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순창군민들은 인구증대를 위해 일자리,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보육, 생활인구 순으로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경제분야, 의료복지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 문화교통분야, 생활인구분야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10년간 매년 기금의 집중투입 분야를 설정했다.

군은 4~5월 중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 정책공약과도 연계성을 높여 5월말 최종적으로 올해와 내년분 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간 매년 1조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지역 학생들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고창군이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체험형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체험 기회가 적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고창군이 주관해 전북과학대학교가 운영하는 과학적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기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10여개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기로 가는 자동차 만들기 ▲AI 데이터 그립톡 ▲암석의 순환 등 다양한 기초과학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북과학대학교 생활과학교실(063-530-9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과학 꿈나무들이 호기심, 과학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재능과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제로 웨이스트' 참여하세요
군산시 SNS 이벤트

군산시가 오는 8일까지 시민들의 제로 웨이스트 참여 독려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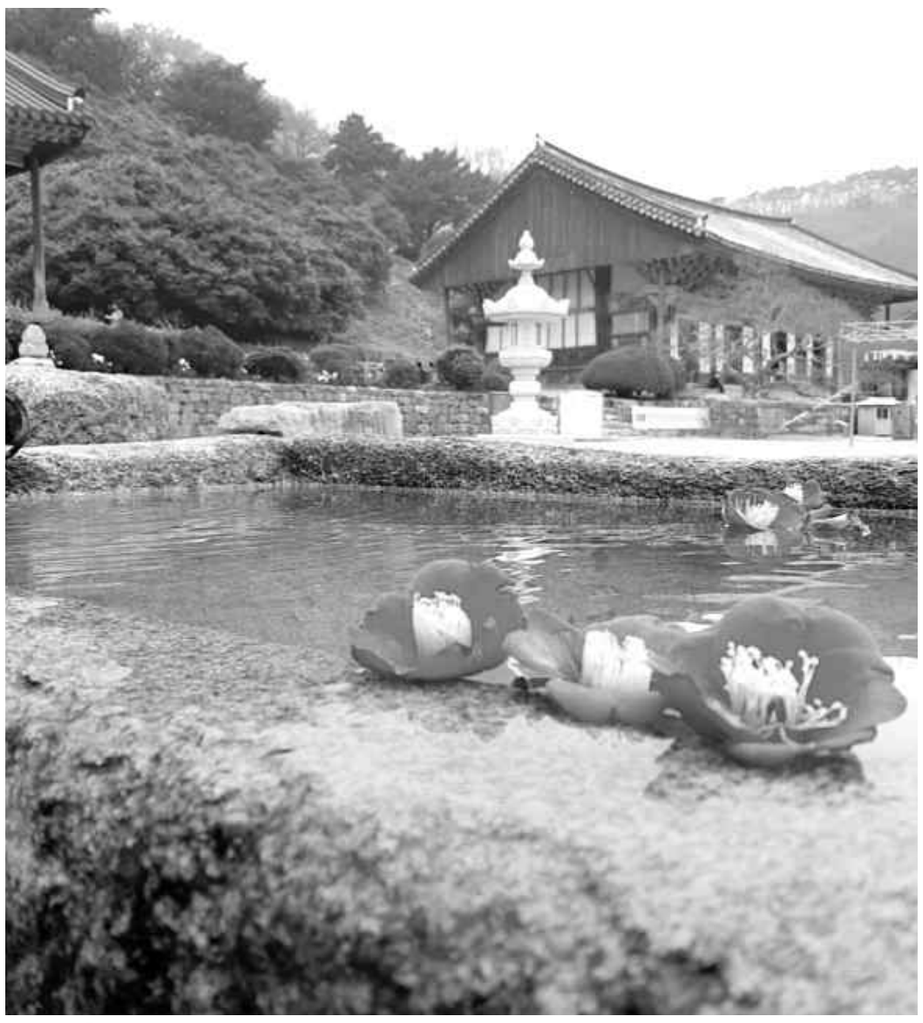
제로 웨이스트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재활용해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친환경 운동이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SNS 이벤트를 마련했다.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이벤트는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자 중 30명을 무작위 추첨해 친환경 생필품으로 구성된 제로 웨이스트 선물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음식이나 음료 구매 시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이 아닌 직접 가져간 다회용 용기, 텀블러, 천 주머니 등에 내용물을 포장한 사진을 찍은 후 시 페이스북 게시글에 '#용기내_군산태그'와 함께 후기 댓글을 남기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배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계획했다"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고 깨끗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용기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천년고찰 배경 삼아 수줍게 핀 동백 고창 선운사에 새빨간 동백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빨간 꽃잎과 짙푸른 잎사귀가 천년고찰을 배경 삼아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다. 선운사 대웅전 뒤뜰에는 수령 500여년 된 동백나무 3000여 그루가 숲을 이뤄 천연기념물 184호로 지정돼 있다. 〈고창군 제공〉